

첫 졸업생을 보내는 보람

인항의 학생 여러분, 먼저 교지의 창간과 제1기생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는 우리 인항이 일취월장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이제 첫 졸업생을 내며 학생활동의 총체적인 집합체인 교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가슴 뿌듯한 보람으로 느낍니다. 제1기생으로서 본교에 입학하여 여러 어려움 속에 자신을 갈고 닦아 영광스런 졸업의 문을 나서게 된 졸업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과 보람과 기대는 4천여 조합원 모두가 같을 것이고 삼년 전 우리 학교의 개교 설립에 성원과 축하를 해주신 분들, 대통령 각하와 문교부, 그리고 지역 사회 인사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는 오늘의 이 벅찬 보람과 기쁨을 학부모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학부모님께서 신설 개교한 본교에 기꺼이 자제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교에 첫 주자로 입학하여 실력과 심신을 닦고 교문을 나서는 졸업반 학생 여러분, 나는 학교의 설립자로서 이 글의 모두에서 여러분을 맞아 졸업시키는 감회와 기쁨을 피력했거니와 여러분의 졸업은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항고등학교가 항만 근로자들이 바닷바람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모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자신들의 배우지 못한 한을 풀려는 엄숙한 의지를 앞세워 세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댓가처럼 값진 것은 없고 또 그것처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숭상에 치우쳐 인간성이 상실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인식되는 잘못된 풍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두 배 이상 인생을 산 내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인생관은 정직과 성실이야말로 자신을 세우는 가장 정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과의



설립자 대표 이강희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손해 보는 듯이 대하는 것, 그것은 상대의 신뢰를 얻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공리적인 결과의 예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졸업생 여러분에 대한 또 하나의 당부로서 봉사와 효행을 들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위에서 말한 성실, 정직과 함께 우리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봉사는 거창하게 남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밝음도 있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처지에 몸담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애로써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주려는 정신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또한 효행은 인류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사회나 국가는 가장 작은 결합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화목한 가정은 효행에서 싹이 트고 사회나 국가의 화목도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행은 자신의 부모는 물론 옷사람에 대한 공경심을 낳아 겸손하고 넉넉한 인성을 갖춘 인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설이 훌륭한 학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학교 설립자들의 대표로서 제 1기, 2기, 3기생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좋고 넉넉한 시설을 갖추어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우리 노조원 일동은 앞으로 체육관과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 것임을 다짐합니다.

인항의 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는 젊은 학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정의 막 뿌리내리고 자양을 빨아들이는 젊고 싱싱한 나무처럼 구김없이 자라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되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학교를 오늘처럼 단단한 반석 위에 오르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가르쳐오신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